

우리홈 새로운 가족들

신정동 우리홈이 11월부터 오류동 우리홈에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셨던 남희경 간사님도 필리핀에 가지게 되어 이곳 운영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세명의 탈북 청년들과 중국친구 요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 21살 자매가 더 들어오기로 했으니 곧 여섯명이 함께 살게 되겠네요.

저희 친구들 사랑을 하려구요.^^

성화는 온지 3년이 채 안됐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수영을 하고, 춤과 연극을 했고, 이제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장사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 친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며 3년 만에 터득한 것들이 정말 놀랍죠? 저녁 늦게 퇴근해 오면 이것저것 먹으며 얘기하느라 제 몸무게는 계속 늘고 있지만, 열살을 갓넘은 아이가 하루 열시간이 넘는 산길을 넘으며 장사한 이야기, 1년을 땅속에서 금을 캐는 이야기, 중풍과 치매를 앓으시던 할머니를 보살피다 지쳐 혼자 개성 이모를 찾아 떠난 일등은 소설 같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아이가 스물 한살 아가씨 맞나 싶다가, 미용사였던 할머니가 나무그늘에 쉬다 조실 때, 가위로 할머니 뒷머리를 다 깎고 반만 남겨놓은 이야기를 하며 정신없이 웃을 때는 딱 심대 소녀 같습니다. 성화는 내년부터 대학에서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시려다 지금 북한 교화소에 계시는 어머니께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은아, 윤아는 자매예요. 은아는 7년 전, 윤아는 올해 들어왔어요. 은아는 내년부터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게 될 똑똑한 친구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동생을 극진히 살피주는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동생 윤아는 애교덩어리. 이제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어떤 재능도, 지혜도 안주셨는데 딱하나 주신 것.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미용일을 해서 행복하대요. 열흘 후에 미용기술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저랑 요샤이 데려다 머리, 신부화장 실습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알아서 척척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쉽지 않은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멋진 청년들, 이 친구들을 보며 통일 후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링링, 요샤이, 웨나, 스자



이제 이렇게 네명의 친구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안양대학, 둘은 신한대학, 모두들 지역 교회와 잘 연결이 되었고 중국인 유학생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국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 토요일부터 새희망 나루 교회에서 북한 친구들과 함께 악기와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능하고 헌신된 선생님들이 도와주게 되었어요. 전부터 꿈꾸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주님께 감사 드려요.

제주도 신학교

지난 9월에 제주도에 왔던 페이가 전임을 결심하고 해남도 교향 부모님께 말씀 드리러 갔다가 집에 감금당할 뻔 했습니다.^^ 그 시골 분들에게 똑똑한 딸이 돈 버는 것을 포기하며 교회를 한다고 하니, 사이비 집단에서 사람을 홀려 데려간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시는가 봅니다. 미신이 강하고 교회가 거의 없다는 해남도의 시골마을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한번 계획해 볼까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가서 즐겁게 지역사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 제주신학교는 조금 빨리 1월에 다시 개강합니다. 이번에는 안디옥 리더 들외에, 쿤밍 임시 어머니님과 친구분들 두분이 더 오십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엘리트들이신데 제주도 신학교가 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다섯 분이 중국교회에 쓰임 받는 사랑과 열정과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사역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보면 마무리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사역으로 바뀐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고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붙들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친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고 저는 일년에 두달~ 세달 더 집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어야 했던 북한을 눈앞에서 느끼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너무나 감사 드려요.~